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 특성

김은경·김영인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Color Images of Purple Clothing

Eun Kyoung Kim · Young In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9. 9. 7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purple color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various purple clothing from Antiquity to modern fashion. In this respect, both documentary and investigative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hrough the documentary studies, the changes and examples of purple clothing were scrutinized, and images of purple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Color Image Scale.

Purple color samples applied during a period from 1993 to 1996, were collected from 33 women's domestic brands, and the colors were measured by the CE 7000 spectrophotometer and analyzed by Munsell HV/C.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1. In Antiquity, the symbolic value of purple was heavenly color, because it was a bearer of light, a sign of the epiphany of the gods.
2. With the advent of synthetic dyes, purples were in the vanguard. This chemical synthesis gave purple, historically a regal prerogative, to the people, and enjoyed a memorable vogue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3. The purple images in fashion were changed by the factors such as culture-art, technological advances, political-economical situations, sports ect., and appears in modern fashion romantic, natural, elegance, classic, gorgeous, chic, and dandy images.
4. In the result of analytical study on women's purple dress in domestic market, 10PB hue and P tone were mostly used from 1993 to 1996.

Key words: purple, color image, color meaning, purple clothing;

보라색의 상징의미, 복식이미지, 국내 여성복의 분석

I. 서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색과 음악에 대한

토론에서 당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여겨진 보라색의 선호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플라톤(Plato), 루크레티우스(Lucretius), 메난더(Menander), 플리니(Pliny) 등 고대 많은 학자들의 저술에 의하면, 고

대 서구에서는 보라색을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여기고 숭배하였다¹⁾.

고대에서는 보라색 염료가 희귀하여 매우 고가였으며, 염색된 보라색 직물은 신비한 표면광택을 지니고 있어서, 고대인들은 이를 하늘이 내린 '천상의 색'이라 하여 매우 아름다운 색으로 여겼다. 이는 고대의 '빛(light)' 개념이 신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²⁾. 보라색의 어원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연유를 알 수 있는데, 보라색(퍼플, purple)의 어원인 라틴어의 *purpura* 또는 그리스어의 *porphyra*³⁾는 빛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puritate lucis*⁴⁾에서 유래하고 있다.

보라색은 또한 시대를 대표하는 색으로도 언급되어왔다. 보라색에 대한 고대인들의 선호가 로마시대에 절정에 달하여, 윌슨(Wilson)은 '보라색은 로마시대의 개념 색'⁵⁾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합성염료의 개발 이후인 아르누보 시대에는 연한 보라색 모브(*mauve*)가 크게 유행되어, 안페레비(A. Ferebee)는 아르누보 시대를 '모브의 시대'⁶⁾로 표현 하였다.

한편, 동양에서도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는 '자극사상(紫極思想)'이라 하여 색상 중에서도 자색(紫色)이 제일이라는 관념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으며⁷⁾, 고귀하고 서상적인 의미를 지닌 색⁸⁾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대로부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라색의 상징적 가치 및 복식 이미지를 고찰하고, 둘째,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보라색을 분석함으로써,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I. 보라색 복식의 사적 고찰

보라색 복식은 염료가 희귀하고 독특한 색채이미지를 지녀서 오랜 시기에 걸쳐 특권 계층의 복식에 사용되어왔으며, 합성염료의 개발이후 대중에게 유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헌에 표현된 보라색 복식 자료는 천연염료를 사용한 고대와 합성염료의 개발 이후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의 보라색 복식

존 게이지(J. Gage)에 의하면, 고대인들에게 '빛'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이었다. 신의 출현(the epiphany of the god)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살아있다는 것은 태양 빛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삶(life)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고대의 모자이크나 채색된 물건 또는 로마시대의 폼페이(Pompeii)와 보스코트레카세(Boscotrecase)에 있는 채색된 벽들, 퍼가몬(Pergamon)과 모르간티나(Morgantina)에 있는 포장 재료들은 갈고 왁스칠을 하여 빛을 지니도록 광택을 만들었다. 이러한 광택에 대한 선호는 색의 가치와 선호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비한 표면광택을 지닌 보라색 직물은 '빛의 내림', 즉 '빛의 전달자'로서 '하늘이 내린 색'이자 '천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색'이라 하여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색으로 여겼다⁹⁾.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피터 신의 체현(體現)을 나타내는 색으로 보라색이 사용되었으며, 엘리우스제전(Eleusis, 곡식의 신 Demeter를 섬기는 신성한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들은 신을 모시기 위해 보라색 복식을 착용하였다¹⁰⁾.

로마시대 초기에는 고위 공직자의 복식에도 허용되어, 보라색과 금으로 된 예복은 승리한 장군만이 입을 수 있었으며, 원로원 의원들은 폭이 넓은 보라색 줄이 있는 튜닉(tunic)을 입을 수 있었고, 기사와 다른 높은 직위의 대신들은 폭이 좁은 보라색 줄이 있는 튜닉을 입었다¹¹⁾.

4세기초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시대가 되어서는 황제의 독점색이 되어,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억모를 피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5세기까 되어 보라색이 널리 퍼지고 암시장이 활성화되었지만, 보라색으로 된 옷을 가지고 있거나 곱게 정제된 보라색 염료를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모조품(imitation)을 가지고 있어도 심한 벌을 받게 되었다¹²⁾.

천연염료로 염색한 보라색은 또한 내구성이 강한 색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양의 그리스 보라색 천들이 거의 2세기 동안이나 광택과 신선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내구성으로 인해 디오클레티안과 콘스탄틴(Constantine)과 같은 황제들은 자신의

수의를 보라색으로 만들게 했다¹³⁾.

현존하는 고대의 보라색 유물은 베르지나(Vergina, Thessaly, BC 4C)의 필립2세의 발골물인 금빛 메달이 달린 반짝이는 보라색 직물이 있으나,¹⁴⁾ 고대에 가장 값지고 가치있는 보라색 복식은 라벤나(Ravenna)의 모자이크에 묘사된 테오도라(Theodora) 황후의 옷을 통해서나 추정해 볼 수 있다. 황후의 보라색 복식은 여러 번 염색되어 가장 짙은 색조로 되어있으며, 광택으로 인해 다양한 색채를 발하고 있다. 플리니는 이러한 황제의 보라색 복식에 대하여 빛나는 흑장미의 색조로 어둠과 빛이 융합하여 색의 모든 세계 즉, 모든 색채를 나타내는 기적이라고 표현 하였다¹⁵⁾.

이와 같이, 그리스 시대에는 신의 체현을 나타내는 색이었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독점색이었던 보라색은 16세기에 이르러, 단지 왕실을 상징하는 색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는 황제의 힘이 신성하다기 보다는 현세적이었기 때문이다¹⁶⁾. 이후의 시기부터는 왕실의 의식, 즉, 대관식이나 장례식 등과 관련된 행사 복식에 주로 보라색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상복(1603)은 보라색¹⁷⁾이었으며, 18세기 궁중 신하들은 왕가의 장례식 이후 1년간 약식의 상복을 착용해야했는데, 법으로 제한된 연한 보라색 복식만을 착용할 수 있었다.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의 배우자였던 앨버트 왕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시 보라색 복식이 유행되며, 궁중 신하들은 애도기간동안 흑백, 백, 연한 보라색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영국 왕실의 회람장에 의복에 대한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¹⁸⁾.

보라색 복식은 왕실의 중요 행사인 대관식과도 관련되어 사용되어왔으며, 이러한 왕실의 의식은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1937년 영국의 대관식에서 에드워드 8세가 착용한 로얄 퍼플(royal purple)의 보라색 복식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쳐 보라색 복식이 유행되었다¹⁹⁾.

서양의 이러한 오랜 관습은 보라색의 색명인 퍼플(purple)의 의미에 남아 있다. Webster사전²⁰⁾에 의하면 퍼플은 황제나 왕실(imperial, royal)을 뜻하며, 'born to(or in) the purple'은 황제의 집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²¹⁾. 또한, 'raised to the purple'은

성직자가 추기경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promotion to the purple'도 제왕이나 추기경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²²⁾.

한편, 동양에서도 보라색은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해영(1982)에 의하면, 동양의 보라색을 의미하는 자색은 황제를 의미하거나, 황제나 신선이 거하는 고귀한 색으로 태일(太一)이나 자궁(紫宮)의 의미를 나타내었다²³⁾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복제에서 자색(紫色)이 고귀한 색으로 가장 높은 자리의 표지로 되어 왔으므로, 출세하여 고관(高官)이 됨을 타자(拖紫)라고 하였다²⁴⁾. 이러한 자색은 문학에도 나타나, 『상청전(上淸傳)』에서는 자색을 고위색으로 표현하여 자(紫)라는 색명만으로도 고위고관을 연상하게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고대 보라색은 희귀함과 염색 후 신비한 표면 광택을 지니는 독특한 색채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기에 걸쳐 신성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여겨져 왔으며, 황실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왔다. 또한 동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서 황제나 신선이 거하는 자궁·태일(紫宮·太一)의 의미를 지니고 고귀하고 신성한 색으로 사용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2) 합성염료 개발 이후의 보라색 복식

1856년 최초의 합성염료로 보라색이 개발되었다. 영국의 퍼킨(W.H. Parkin)이 우연히 발견한 보라색 아닐린(anilin C₆H₅NH₂)염료는 복식사뿐 아니라 일반 색채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²⁶⁾. 한편, 프랑스에서는 퍼킨의 아닐린 염료가 특허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자체적으로 염색법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말로우(mallow)꽃의 섬세한 이름을 본 따서 모브(mauve)라 명명하였으며, 그 이름이 보라색명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²⁷⁾. 보라색 합성염료의 개발로 인해 보라색 복식은 대중에게 널리 유행되었다. 특히, 1862년 빅토리아 여왕이 모브색 드레스를 입고 국제 대전람회에 참석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²⁸⁾.

1879년 모브 이후 새로운 합성염료인 마젠타가 개발되었으며, 이 염료는 왕가의 장례식 이후 법적인

로 규제되어온 희미한 색조에 싫증을 느낀 빅토리아 시기에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³⁶⁾.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아르누보 예술양식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르누보 양식은 산업혁명의 결과인 기계제품들의 거칠고 직선적인 선들과 합성염료의 조악하고 강렬한 색채에 반기를 들고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선과 형태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 예술양식이다³⁷⁾.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인해 빅토리아 시대를 특징짓는 적금색(赤金色)의 화려한 색채는 회색, 핑크, 사과빛 녹색, 올리브색 등의 파스텔 색조로 대체되었으며, 특히 모브색이 제일 인기 있는 색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페레비는 아르누보의 시대를 '모브의 시대'라 칭하였다³⁸⁾. 복식의 색채에도 이러한 아르누보의 영향과 당시의 낙천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전시대의 적갈색, 짙은 보라색, 검은색 등이 대체로 환하고 부드러운 완두콩색(sweet pea), 모브, 오프 화이트(off-white)등 파스텔 색조로 대체되었으며, 어린 소녀들에게는 흰색, 성숙한 여인들에게는 모브색 복식이 주를 이루었다³⁹⁾.

이후의 20세기 복식에서는 기술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색상과 색조의 복식이 등장하게 되므로 보라색만이 두드러지는 시기보다는 보라색을 중심으로 한 배색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대에는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이 복식의 색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의 예로틱하고 이국적인 공연에 사용된 색채는 바이올렛, 겨자색, 노랑색, 파랑색 등을 위주로 한 원색이었으며 이전까지의 복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패션과 인테리어 등의 색채로 널리 사용되었다. 폴 뵘와레(Paul Poiret)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19세기 후반에 널리 퍼져있던 회색 기미의 모브, 파랑색, 분홍색, 음울한 검은색 등을 배척하고, 화려한 색의 복식을 디자인하였다. 즉, 빨강색과 보라색의 배색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금색, 에머랄드, 라임 그린, 짙은 파랑색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⁴⁰⁾.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미국에서는 유행색으로서의 예측색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 해의 예측색은 밝은 꾸뛰르(couture)색, 특히 그 시대의 앞서가는 디자이너인 폴 뵘와레의 색으로, 로알 퍼플, 에

머랄드 그린, 피코크 블루(peacock blue)가 특색을 이루었다. 이 예측은 상당한 성공을 이루어 이들이 제시한 화려한 색채와 룩(look)은 1920년대의 플래퍼 스타일(flapper style)에 전용되었다⁴¹⁾.

1930년대에는 초현실주의 사조가 복식의 색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다. 초현실주의는 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색채에서도 현실성을 벗어나 과장되고 요란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복식의 색채는 주로 헬리오트로 퍼플(heliotrop purple), 패럿 블루(parrot blues), 에머랄드 그린, 골든 옐로우(golden yellow), 분홍색 등이다⁴²⁾. 당시 복식의 배색에서 보여지는 히야신스 청색과 코코아 브라운(cocoa brown), 터쿼이즈블루와 자주색(prune), 겨자색과 회색의 배색은 30년대를 특징짓는 배색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패션은 여성적인 룩과 색채로 표현되었다. 10대 소녀들에게는 형광 오렌지색과 핫 핑크색의 수영복 그리고, 보라색 앙고라 스웨터와 노랑색의 보색대비를 이룬 스타일이 유행되었으며, 나이든 여성들은 현란한 연두색과 보라색의 화려한 수트 차림을 즐겼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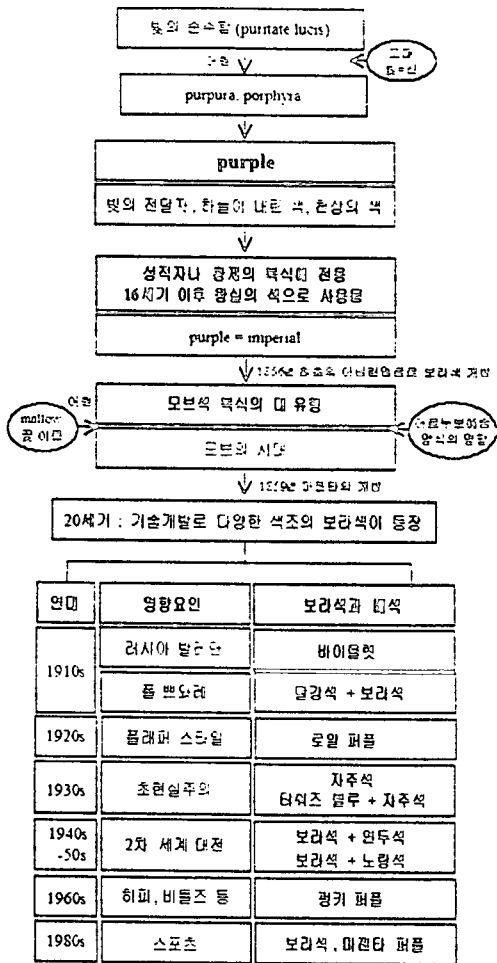
1960년대는 젊음 지향적 사회운동, 환각제와 연관된 사이키델릭(psychedelic) 색채가 사회전반에 널리 유행된 시기로, 이 시대의 특징은 청바지를 입은 히피, 비틀즈의 열광 팬들, 핫 컬러의 미니 스커트, 하얀 가죽 부츠, 액시드 옐로우(acid yellow), 핑키 퍼플(funky purple)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1980년대에는 스포츠가 크게 유행하면서 인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시기로, 밝은 색조의 운동복에는 주로, 보라색, 녹색, 분홍색, 밝은 오렌지, 마젠타, 터쿼이즈 블루등이 사용되었으며, 테니스 신발에는 마젠타 퍼플과 함께, 연두색, 주황색, 분홍색, 터쿼이즈 블루 등이 배색으로 사용되었다⁴⁶⁾.

이상의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 분류

보라색 복식의 사적 고찰 결과 80년대까지의 변화된 보라색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과 같이, 문헌에 의해 조사된 보라색은 상징적으로 또는



[그림 1] 보라색 복식의 시대별 변화도

색상명으로 보라색이 제시되어 구체적인 색채와 이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보라색 특성을 표준 색채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색상 범주로 규정하고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토대로 조사된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1) 보라색의 범주

'보라'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순수 우리말 이름이다. 한국 산업표준심의회 '유채색의 기본 색이름'에 관한 규정(1981)에 의하면, <표 1>에서와 같이 보라색은 보라 또는 자색이라 명칭되어 있으며, 대응영어로 퍼플(purple)로 되어있다. 또한, 남색의 대응

<표 1> 보라색의 기본 색이름

기본색이름	대응영어	약호
남색	violet, purple blue	V
보라(자)색	purple	P
자주(적자)색	red puple, magenta	M

영어로 퍼플 블루(purple blue) 또는 바이올렛(violet)으로 자주는 레드퍼플(red purple) 또는 마젠타(magenta)로 표시되어있다.

국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보라는 엷은 남빛과 엷은 자주빛이 섞인 빛(1)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응하는 영어 색이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퍼플(purple)은, 달강과 파랑이 혼합된 어두운 색, (지금은 드문) 짙은 심홍색으로 정의되어있으며, 바이올렛은 파랑 띠 보라색, 마젠타는 보라 띠 딸강으로 정의되어있다(2). 따라서, 보라색은 딸강과 파랑이 혼합된 2차 색으로 그 범주는 남색에서 자주색까지의 범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라색의 범주는 관용 색명으로 더 세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2)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 분류

복식에 표현된 보라색이미지는 고바야시(1981)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V: Vivid, Vp: Very Pale, P: Pale, B: Bright, S: Strong, Lgr: Light Grayish, L: Light, Dl: Dull, Dp: Deep, Gr: Grayish, Dk: Dark, Dgr: Dark Grayish을 나타낸다. 색상에 의한 온도감과 색조에 영향을 받는 경연감을 흑으로 하는 이미지 스케일 중 연구범주에 해당하는 보라색(5P)의 색조위치를 선정하였으며, 그 위에 언어이미지 스케일을 대응시켜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보라색(5P)은 색조에 따라 로맨틱(romantic), 내추럴(natural), 엘레강스(elegance), 쉬크(chic), 고저스(elegance), 클래식(classic), 댄디(dandy) 이미지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Vp의 밝은 색조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로맨틱이미지의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B, S, Lgr, L 등의 색조는 문화한 엘레강스이미지 범주로, Gr, Dk, Dgr 등의 짙은

<표 2> 보라색의 관용 색이름

관용 색이름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에 의한 표시	대표적인 색의 대응영어 (3속성에 의한 표시 : 참고)	대응영어 (참고)
도라지꽃색	밝은 남색	9.0PB 3.5/13.0	Wistaria Pansy
진남색	진한남색	9.0PB 2.5/9.5	
등꽃색	칙칙한 남색	10.0PB 6.5/6.5	
오랑캐꽃색 (팬지)	진한 남색	1.0PB 2.5/10.0	Violet
제비꽃색 (바이올렛)	남색	2.5P 4.0/11.0	
비둘기색	어두운 회 보라	2.5P 4.0/3.5	
창포색	파랑 띠 보라	3.0P 4.0/11.0	Iris Lavender Mauve
붓꽃색	파랑 띠 보라	3.0P 4.0/11.0	
라벤더	칙칙한 파랑 띠 보라	5.0P 6.0/5.0	
모브	파랑 띠 보라	5.0P 4.5/9.5	
라일락	연한 보라	6.0P 7.0/6.0	Lilac
오키드	연한 보라	7.5P 7.0/6.0	Orchid
가지색	어두운 회 보라	7.5P 2.5/2.5	
자감(紫紺)	어두운 보라	8.0P 2.0/4.0	
모란꽃색	해맑은 자주	3.0RP 5.0/14.0	Magenta
마젠타	해맑은 자주	6.0RP 4.0/14.0	
따오기색	연한 보라 띠 빨강	7.0RP 7.5/8.0	
신달래색	해맑은 보라 띠 빨강	7.0RP 5.0/13.0	

PB: 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

색조는 남성적인 댄디 이미지의 범주로, V의 화려한 색조는 호화로운 고저스 이미지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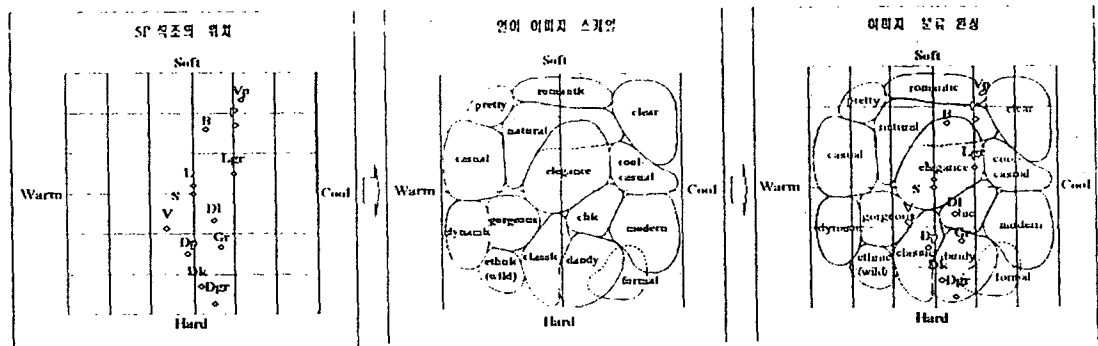
한편, 이흥규(1994)에 의하면, 청색조의 보라색 이미지는 청아하고 낭만적이어서 로맨틱하고 편안한

<표 3> 색조별 보라색 복식 이미지

분류	색조	이미지
고저스(Gorgeous)	V	성숙하고 호화로운 고급스러운 이미지
로맨틱(Romantic)	Vp	은순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미지
내추럴(Natural)	P, B	자연이 갖는 소박한 이미지
엘레강스(Elegance)	S, Lgr L	은화하고 섬세하며 품위있는 우아한 이미지
쉬크(Chic)	DI	수수하고 세련된 침착한 어른의 이미지
클래식(Classic)	Dp	고전적, 호화로운 전통적 이미지
댄디(Dandy)	Gr, Dk Dgr	격조·침착함·안정감이 있는 남성적인 이미지

느낌을 주며, 붉은 보라색은 화려함을, 일반적인 보라색은 환상적이고 우아하며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진한 느낌을, 색이 짙고 선명한 보라색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매력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표 4>.

이상의 내용을 문헌 고찰 결과와 비교해서 복식 이미지를 분류해보면, 고대 황실을 중심으로 사용된 신비한 표면광택을 지닌 짙은 색조의 보라색 복식은 화려하고 신성하며 권위적인 복식 이미지로 고저스와 엘레강스 댄디 이미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르누보 시대의 연한 파랑 띠 보라색(표 2, 참조)인 모브의 복식 이미지는 섬세한 꽃의 이미지



[그림 2] 색조를 기준으로 한 이미지의 분류 과정

<표 4> 색상별 보라색의 복식 이미지

색 상		이미지	분 류
푸른 보라	남색(9PB-3P미만), 파랑뎀보라(3P-6P미만)	청아·낭만·편안함	로맨틱·내추럴
보라색	보라색(6P-9P미만)	환상적·우아·깊고 헤아릴 수 없는 느낌	엘레강스
붉은 보라	달강뎀보라(9P-2RP미만) 자주색(2RP-7.5RP미만)	화려함·신비·신성함	고저스

로 청아하고 낭만적인 로맨틱·내추럴이미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고위고관을 연상시키는 동양의 자색 복식은 엘레강스이미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성직자의 의례복 등에 사용되는 보라색 복식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클래식이미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인해 색상과 색조가 다양해진 현대 복식에서 보라색 이미지는 내추럴, 로맨틱, 엘레강스, 고저스, 쉬크, 클래식, 댄디이미지로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실증적 연구방법

합성염료의 개발 이후 현대 복식에서는 다양한 보라색의 색상과 색조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앞의 보라색 복식에 대한 시대적 문헌 고찰 결과에서는 80년대까지의 보라색 복식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므로, 90년대의 현대 복식에 사용된 보라색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보라색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첫째,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보라색의 색상, 색조 분포 및 이미지를 분석한다.

둘째, 계절별로 사용된 보라색의 색상, 색조 및 이

미지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연령에 의한 시장 세분별로 사용된 보라색의 색상, 색조 및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다.

2. 연구범주

본 연구에서는 보라색의 범주를 먼셀색체계를 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심의회에서 지정한 남색(10PB-3P미만), 파랑 뎀 보라(3P-6P미만), 보라색(6P-9P미만), 달강 뎀 보라(9P-2RP미만), 자주색(2RP-7.5RP미만)에 해당하는 10PB에서 7.5RP까지로 하였다.

3.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국내 7개 여성 의류업체(대현, 나산, 삼성패션, LG패션, 코오롱, 신원, 성도)의 32개 브랜드로 하였으며,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4. 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하여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의 의류 기획에 사용된 색채 샘플 총 1499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색채를 CE 7000측색기로 측색하였으며, 이를 먼셀 기호인 HV/C 값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보라색 범주에 해당하는 색은 161색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채도 18이하의 색감이 없는 무채색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 116색이 분석에 사용되었다<표 6>.

<표 5> 조사된 브랜드

집단 항목	영집단 (18~23세)	어덜트집단 (24~28세)	미씨집단 (29~39세)	계
조사된 브랜드	FO9, 저스트, CC클럽, 오렌지 카운티, 아이덴티 나이스클 랍, 비키	캐서린햄렛, 베스더벨리, 파지오, 씨, 움스크, 아방뚜뜨, 예츠, 엘르, 꾸즈베, 조이너스, 스테파넬, 미셀클랑, 콤포니아	자니로주디체, 예거, 멜리사, 마르조, 베라, 안나페리나, 로오제, 페페, 포엔모아, 브라앙뜨, 크리스천오자르, 크로와제	
브랜드수	7	13	12	32

〈표 6〉 조사된 보라색

색상 항목	10PB	2.5P	5P	7.5P	10P	2.5P	5P	7.5P	전체
조사된 보라색	74	21	14	6	7	14	15	10	161
분석에 사용된 보라색	56	9	9	4	5	11	13	9	116

색조 분류는 NCD톤분류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분집단별 보라색 분석은 출현율(빈도수/브랜드수)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표 5>에서와 같이 세분집단별 조사된 브랜드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IV. 결과 및 논의

1. 전체 보라색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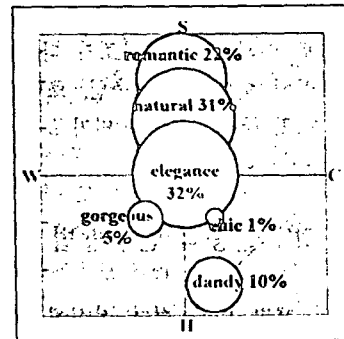
조사된 보라색의 전체 색상·색조 분포를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국내 여성복에는 10PB/P의 보라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10PB(49%)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5RP(11%)>2.5RP(9%)>7.9RP(8%)=2.5P(8%)=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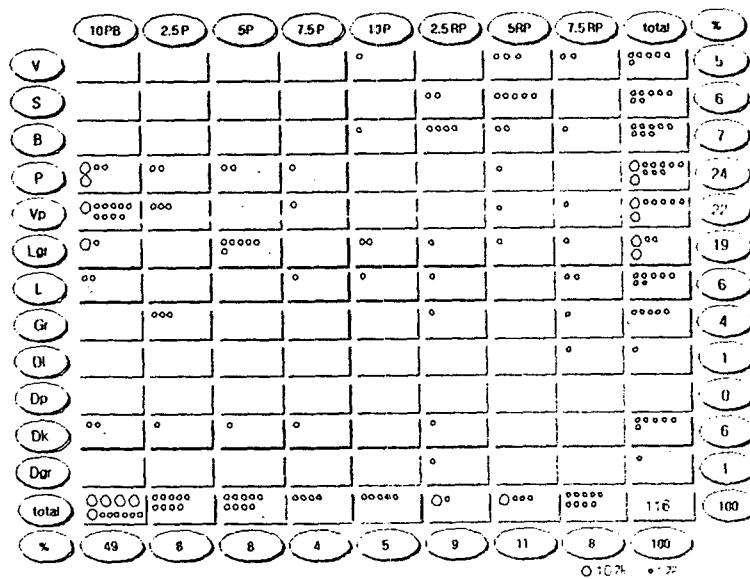
(8%)>10P(4%)>7.5P(3%) 순으로 사용되었다.

색조는 P(24%) 색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Vp(22%)>Lgr(20%)>B(7%)>S(6%)=L(6%)>V(5%)=Dk(5%)>DI(1%)>Dgr(1%) 순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보라색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림 4]에서와 같이, 엘레강스(32%) 이미지의 보라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내추럴(31%)>로맨틱(22%)>댄디(10%)>고저스(5%)>쉬크(1%) 이미지의 보라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보라색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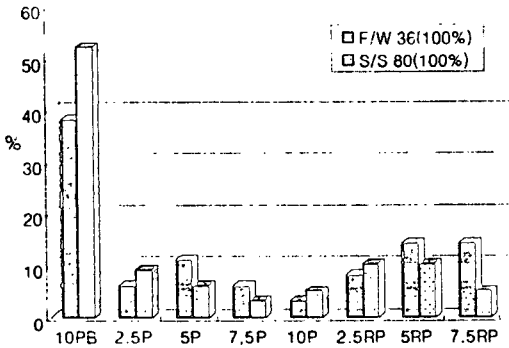


[그림 3] 보라색의 전체 색상·색조 분포

2. 계절별 분석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보라색의 계절별 색상 빈도분포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을/겨울(36)보다 봄/여름(80)에 더 많은 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겨울에는 10PB(38%) > 5RP(14%) = 7.5RP(14%) > 5P(11%) > 2.5RP(8%) > 7.5P(6%) = 2.5P(6%) > 10P(3%)의 보라색이 사용되었으며, 봄/여름에는 10PB(52%) > 2.5RP(10%) = 5RP(10%) > 2.5P(9%) > 5P(6%) > 7.5RP(5%) = 10P(5%) > 7.5P(3%)의 보라색이 사용되어, 두 계절 모두 10PB의 보라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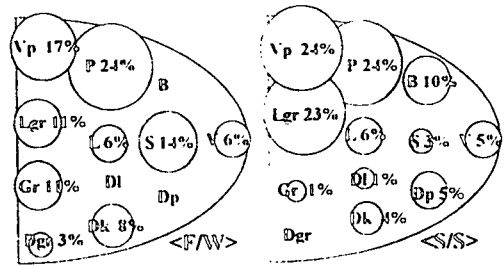
5P, 7.5P, 5RP, 7.5RP는 가을/겨울에 10PB, 2.5P, 10P, 2.5RP는 봄/여름에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붉은 보라색은 가을/겨울에 푸른 보라색은 봄/여름에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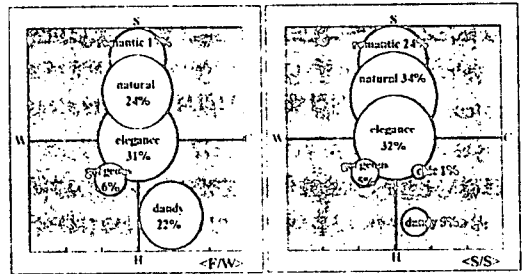
[그림 5] 계절별 보라색의 빈도

계절별 보라색의 색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6]에서와 같이, 봄/여름에는 Vp(24%) = P(24%) > Lgr(23%)과 같은 밝은 색조의 보라색(71%)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겨울에는 마찬가지로 P(24%) 색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봄/여름보다 S, Gr, Dk 등 짙은 색조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계절에 따른 보라색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림 7]에서와 같이, 봄/여름에는 내추럴 이미지(34%)의 보라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엘레강스(32%) > 로맨틱(24%) 이미지의 보라색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그림 6] 계절별 보라색의 색조 분포



[그림 7] 계절별 보라색 이미지

나타났다. 가을/겨울에는 엘레강스(31%) 내추럴(24%) > 댄디(22%) 이미지의 보라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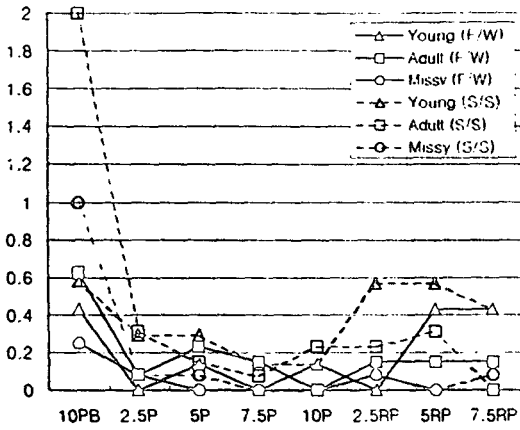
3. 시장세분별 분석

시장 세분별 보라색의 빈도 분포 및 출현율을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어덜트집단이 보라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영집단과 미씨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보라색 범주의 색상을 출현율로 살펴본 결과 [그림 8]과 같이, 10PB, 2.5P, 10P의 보라색은 어덜트집단이, 5P, 7.5P, 2.5RP, 5RP, 7.5RP의 보라색은 영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

<표 7> 시장세분별 보라색분포

집단 항목	영집단 (18~23세)	어덜트집단 (24~28세)	미씨집단 (29~39세)	계
브랜드수	7	13	12	32
보라색 분포 (%)	32 (28)	63 (54)	21 (18)	116 (100)
출현율	4.57	4.85	1.75	3.63



[그림 8] 시장세분별 보라색의 출현율

덜트집단은 푸른 보라색을 영집단은 붉은 보라색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덜트집단의 5P와 7.5P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봄/여름에 더 많은 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세분별 보라색의 색조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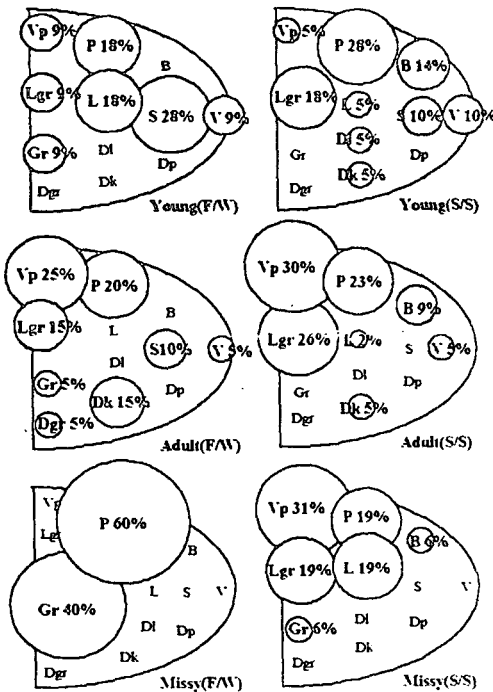
영집단은 가을/겨울 S(28%)의 색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P(18%), L(18%)색조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여름에는 P(28%) > Lgr(18%) > B(14%)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다.

어덜트집단은 가을/겨울 Vp(25%) > P(20%) > Lgr(15%) > Dk(15%)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봄/여름에는 Vp(30%) > Lgr(26%) > P(23%)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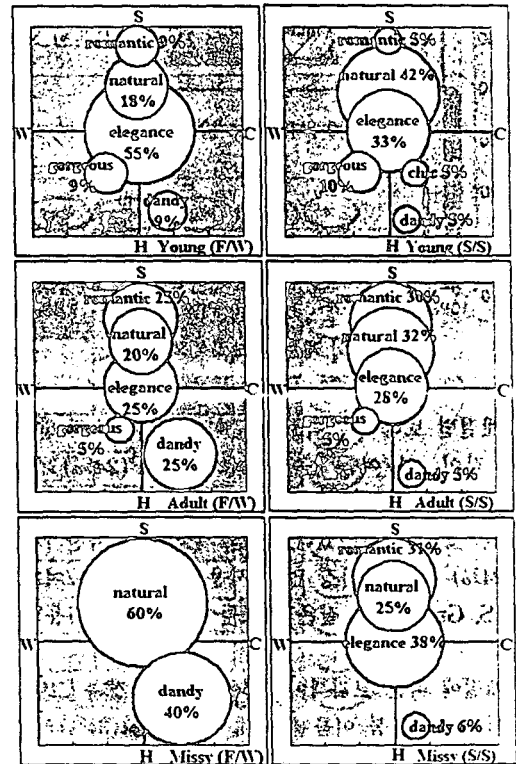
미씨 집단은 봄/여름에는 Vp(31%), P(19%), Lgr(19%), L(19%)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가을/겨울에는 P(60%) 색조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봄/여름에 밝은 색조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세분별 보라색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림 10]



[그림 9] 시장세분별 보라색의 색조 분포



[그림 10] 시장세분별 보라색 이미지

10)과 같이, 영집단은 가을/겨울 엘레강스(55%)이미지의 보라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봄/여름에는 내추럴(42%)과 엘레강스(33%)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덜트 집단은 가을/겨울 엘레강스(25%), 로맨틱(25%), 덴디(25%)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봄/여름 로맨틱(30%), 내추럴(32%), 엘레강스(28%)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미씨집단은 가을/겨울 내추럴(60%)이미지의 보라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봄/여름에는 엘레강스(38%), 로맨틱(31%), 내추럴(25%)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93년부터 96년 사이의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보라색을 분석한 결과, 10PB/P의 보라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봄/여름에는 내추럴이미지, 가을/겨울에는 엘레강스이미지의 보라색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세분별로 살펴본 결과, 봄/여름 영집단과 어덜트 집단은 내추럴이미지, 미씨집단은 엘레강스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가을/겨울 영집단은 엘레강스, 어덜트 집단은 로맨틱, 엘레강스, 덴디, 미씨 집단은 내추럴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보라색의 상징적 가치 및 복식 이미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본 연구 내용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 결과, 동양의 보라색(자색)은 황제를 의미하거나 황제나 신선이 거하는 고귀한 색을 나타내었으며, 고대 서구에서는 보라색(퍼플)의 신비한 표면광택이 빛의 상징적 가치와 관련되어 '빛의 전달자'라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보라색 복식은 황제나 고위고관의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신성하고 고귀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1856년 이후 최초의 합성염료인 보라색(모브, 마젠타)이 개발되자 오랜 시기에 걸쳐 황실의 색으로 사용되어온 보라색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아르누보 시대에는 낭만적인 이미지의 연한 보

라색 복식이 시대를 대표하는 색으로 유행되었다.

20세기 이후 현대 복식에서는 기술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보라색(바이올렛, 로얄 퍼플, 핑키 퍼플 등)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복식의 색채가 점차 색상과 색조 측면에서 다양화되었으므로 보라색도 달강색, 터퀴즈 블루, 연두색, 노랑색 등 다른 색과 함께 배색되어 많이 사용되었다.

문헌으로 조사된 보라색 복식의 이미지를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토대로 분류한 결과, 고대 황실에서 사용한 짙은 색조의 보라색은 고저스, 엘레강스, 덴디이미지로, 동양의 자색 복식은 엘레강스이미지로, 아르누보시대의 연한 파랑 띠 보라색은 로맨틱·내추럴이미지, 성직자의 의례용 복식은 클래식이미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대 복식의 보라색은 엘레강스, 로맨틱, 내추럴, 고저스, 슈크, 덴디, 클래식 이미지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상의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90년대 현대 복식에 사용된 보라색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국내 여성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여성복에는 엘레강스이미지의 보라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내추럴, 로맨틱이미지의 보라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덴디, 고저스, 슈크이미지의 보라색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봄/여름에는 내추럴이미지, 가을/겨울에는 엘레강스이미지의 보라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시장세분별로 분석한 결과 봄/여름에 영집단과 어덜트집단은 내추럴이미지, 미씨집단은 엘레강스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가을/겨울에 영집단은 엘레강스, 어덜트 집단은 로맨틱, 엘레강스, 덴디, 미씨집단은 내추럴이미지의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보라색 복식은 고대에는 빛의 의미와 관련되어 신성한 복식 색채로 중요시되었고, 20세기 초반에는 대중적인 낭만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현대에는 로맨틱, 내추럴, 엘레강스, 덴디, 고저스, 클래식, 슈크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재나 형태 등 복식이미지를 형성하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총체적인

이미지 연구의 색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John Gage, *Color and Culture*(London: Thames & Hudson, 1996), p. 11-16.
- 2) *Ibid.*, p. 14-27.
- 3) Hope A., Walch M., *The Color Compendium*(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p. 256.
- 4) John Gage, *op. cit.*, p. 27.
- 5) 이해영, "복식에 나타난 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p. 41
- 6) Ann Ferebee, 서병기(역), *디자인 小史*(서울: 미진사, 1986), p. 70.
- 7) 이홍규, *칼라이미지사전*(서울: 조형사, 1994), p. 129.
- 8) 이해영, *op. cit.*, p. 49.
- 9) John Gage, *op. cit.*, p. 9-27
- 10) 카버비렌, 김화중(역), *색채심리*(서울: 명지출판사, 1992), p. 29.
- 11) John Gage, *op. cit.*, p. 24.
- 12) *Ibid.*, p. 25.
- 13) *Ibid.*, p. 25-26.
- 14) *Ibid.*, p. 24.
- 15) *Ibid.*, p. 26.
- 16) Marshall, *Colour*(London: Marshall Editions Limited, 1988), p. 220.
- 17) Hope A., Walch M., *op. cit.*, p. 211-212.
- 18) Marshall, *op. cit.*, p. 218.
- 19) Hope A., Walch M., *op. cit.*, p. 302.
- 20)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A Divisionn of S & S, Inc., 1995, p. 1092.
- 21) Marshall, *op. cit.*, p. 218/ 10세기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 7세의 별칭인 Porphyrogenitus는 황제의 아들에 대한 칭호로, 'born to the purple'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22) 이해영, *op. cit.*, p. 52.
- 23) *Ibid.*, p. 48.
- 24) 河龍得,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서울: 명지출판사, 1992), p. 180.
- 25) 조규화, *복식미학*(서울: 수학사, 1989), p. 149.
- 26) Hope A., Walch M., *op. cit.*, p. 14.
- 27) Marshall, *op. cit.*, p. 218.
- 28) Hope A., Walch M., *op. cit.*, p. 14.
- 29) *Ibid.*, p. 198.
- 30) *Ibid.*, p. 30.
- 31) Ann Ferebee, *op. cit.*, p. 70.
- 32) Marshall, *op. cit.*, p. 218.
- 33) *Ibid.*, p. 116-117.
- 34) Hope A., Walch M., *op. cit.*, p. 301.
- 35) *Ibid.*, p. 302.
- 36) Marshall, *op. cit.*, p. 180.
- 37) Hope A., Walch M., *op. cit.*, p. 302.
- 38) *Ibid.*, p. 302.
- 39) *Ibid.*, p. 303.
- 40) *물체의 색이름(KS A 0011)*, 한국표준협회 발행, 1992, p. 1.
- 41) 새우리말큰사전(상), 삼성출판사, 1987, p. 1470.
- 42)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p. 1092.
- 43) Shigenobu Kobayashi,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rch & Application*, 6(2), 1981, p. 102.
- 44) 이홍규, *op. cit.*, p. 129.